

오순절 후 아홉번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9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4년 7월 21일 오전 10시

인도: 한경준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07 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통일 243)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9 번 시편 65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한경준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Matthew) 13:24-30	임희진 집사
찬 양 Anthem	“임하소서”	찬양대
설 교 Sermon	“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Are You Living in Heaven?)”	조문길 목사 (총회 한인목회실)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38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아” (통일 49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조문길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해 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많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악된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5:15, 롬 6:1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놓으라 하리라.”

(**마13:30**)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t that time I will tell the harvesters: First collect the weeds and tie them in bundles to be burned; then gather the wheat and bring it into my barn.” (**Matthew 13:3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21 (주일)	7/22 (월)	7/23 (화)	7/24 (수)	7/25 (목)	7/26 (금)	7/27 (토)
	삿5	수23	삿7	삿8	삿9	삿10:1-11:11	삿11:12-40
본문	행9	행3	행11	행12	행13	행14	행15
	렘18	렘12	렘20	렘21	렘22	렘23	렘24
	막4	마26	막6	막7	막8	막9	막10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24수 오후7:30)	“예수님의 열두제자”(마10:1-15)-김강석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7/27토 오전6:30)	“포도원 품꾼의 비유”(마20:1-16)-윤영록 장로

지난 주일 (7/14) 말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 (시 24:1-10, 엡:1:1-14)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귀한 신앙을 본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8:17)는 말씀 앞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달라”(대상4:10)라는 “아베스의 기도”는 자신있게 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라는 겐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선뜻 따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복”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1)첫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4절,5절)이고, 2)둘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복”(7절)이며, 3)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신 “복” (13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